'다니엘 피가 선택한 최상의 프리미엄 싱글빈야드 말벡'

트라피체 싱글 빈야드 말벡 암브로시아

Trapiche Single Vineyard Malbec 'Ambrosia'

지역	아르헨티나 〉 멘도자 〉 투푼카토		
포도품종	말벡 100%		
알코올	14.5%	용량	750ml
시음 적정 온도	16-18℃		
테이스팅 노트	짙은 레드 컬러로 강렬한 레드 프루트의 아로마와 미묘한 스모키 노트와 스파이스함이 입안에서 느껴진다. 또한, 약간의 흑연향이 느껴져 와인에 단단한 구조감을 주고 미네랄리티와 신선한 느낌이 어우러져 마지막까지 인상적인 긴 여운을 느낄 수 있는 와인이다.		
페어링 TIP	붉은 육류, 치즈, 훈제/염장 음식, 밀가루 음식(피자, 파스타 외)		

당도 (DRY – SWEET): **1** 2 3 4 5

바디 (LIGHT – FULL): **1** **2** **3** **4** 5

제품설명

2003년 부터 시작된 떼루아 시리즈는 매년 트라피체의 수석 와인메이커인 Daniel Pi(다니엘 피)와 그의 팀이 트라피체의 본질인 고품질 말벡의 다양성을 소비자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트라피체와 협약을 맺고 있는 80개의 싱글 빈야드에서 3개의 빈야드만을 선택하여 만들어진다. 암브로시아의 경우 해발고도 1,307m의 고지에 위치해 있는 투푼가토(Tupungato)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평균 수령 12년의 포도나무에서 고품질의 포도를 손으로 선별하여 수확한다. 그 후 프렌치 오크통에서 18개월 동안 숙성, 12개월 병 숙성 후 출시한다.

수상내역

2020빈티지 92점
2020빈티지 제임스 서클링 James Suckling 96점
2020빈티지 디켄터 Decanter Gold

와이너리

안데스 산기슭의 멘도자에 위치한 트라피체는 1883년에 설립된 이후 내수/수출 물량 1위로써 명실공히 아르헨티나 대표 와이너리로 인정받았다.
120여 년의 긴 역사 속에서도 개척정신과 혁신적인 마인드를 유지해온 트라피체는 세계적인 와인 컨설턴트인 미셸 롤랑과 합작으로 '이스까이'란 제품을 만들어 내어 세계적인 명성을 얻으며 아르헨티나 와인의 위상을 드높였다.
또한 영국에서 열리는 세계적인 권위의 와인 품평회인 IWSC에서 올해의 아르헨티나 와이너리(Argentina Wine Producer of the Year) 트로피를 4회 수상하였으며 (2004, 2006, 2011, 2012), 2007년부터 2013년까지 5차례나 임팩트 매거진의 "Hot Brand"를 수상하면서 품질과 대중성 모든 부분에서 그 뛰어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아르헨티나 '말벡' 열풍의 선도자로서, Wine Spectator Top 100, Wine Enthusiast Top 100에 선정된 '트라피체 싱글빈야드 말벡'부터 1년 동안 전 세계 250만 병이 팔린 '오크캐스크 말벡'과 같은 대중적 와인까지 다양한 포트폴리오로 '아르헨티나 와인'의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

※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